

광주 나선재·전남 정다환 “올림픽 금 목표로 뛰겠다”

밀양코리아주니어배드민턴 오픈 U-17 남자 복식서 대만 꺾고 금 획득
전대사대부고·전남기술과학고로 학교 다르지만 국제대회 때마다 호흡

“함께 국가대표 목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배드민턴 나선재(전대사대부고 1년)와 정다환(전남기술과학고 1년)이 '2024 원천오넥스 밀양 코리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U-17 남자 복식 1위에 올랐다.
나선재와 정다환은 지난 1일 경남 밀양에서 열린 이번 대회 U-17 남자 복식 결승에서 황진카야·조위안황(대만)을 2-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이들은 16강에선 송원우·김태근(한국)을 2-0으로, 8강에서 슌키하기와라·마이로마스모토(일본)를 2-1로, 4강에서 은주이창·하오시양창(대만)을 2-0으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학교는 다르지만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이들은 서로의 동기부여가 되어주며 국가대표를 목표로 뛰고 있다.
나선재는 “예전부터 같이 운동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라서 경기할 때 서로 말 안 해도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전에 잘했던 거 생각하면서 준비한 것만 다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뛰었다”고 전했다.
나선재와 정다환은 2년 전 '2022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U-15 남자복식에서 처음으로 함께 국제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이후 2023 태국주니어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선 U-17 남자복식 동메달도 획득했다.
정다환은 “2년 전에 선재랑 한번 우승 했었는데 또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선재는 빠르고 전위 플레이를 잘하고, 나는 힘이 있고 뒤에서 잘하는 편이라 그

점이 잘 맞는 것 같다”며 “점점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걸 느낀다. 같이 이번 경험 통해서 부족한 점 더 생각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더 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내고 나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실력 키워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들은 오는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4 YONEX Pathumthani 태국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다시 한번 환상의 호흡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전남사대부중 박하민·명시호(2년)는 이번 밀양 대회에서 U-15 복식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16강에서 코이치리랏·유타삭나닛(태국)에 2-0, 8강에서 오스케아리에·코스테시노아라(일본)에 2-1, 4강에서 김다환·강용호(한국)에 2-0으로 승리한 뒤, 결승에서 서현규·강준우(한국)에 2-0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광주체고 권혜원·김나연(1년)은 이번 대회 U-17 여자복식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정다환(왼쪽), 나선재가 '2024 원천오넥스 밀양 코리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U-17 남자 복식 1위에 오른 뒤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사대부고 배드민턴팀 제공>

“페퍼스 선수들과 크리스마스 추억 만들어요”

15일까지 '에스코트 키즈' 모집
22일 경기 선수와 동반 입장

페퍼스축구는 AI페퍼스가 크리스마스 홈경기를 맞아 어린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페퍼스는 오는 22일 오후 4시 도드람 2024-2025 V리그 IBK기업은행 알토스와의 경기에서 선수단과 함께 손잡고 입장할 '에스코트 키즈' 20명을 모집한다.
따뜻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만 6-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둔 페퍼스 공식 어플 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페퍼스 공식 어플 'AI페퍼스'에서 이뤄지며 '내 활동-마이포스트' 메뉴에 '#에스코트 키즈'를 포함한 제목으로 자녀가 공놀이 하는 모습을 게시하면 된다.
에스코트 키즈에게는 선수단 동반 입장 외에도 최대 4매의 당일 홈경기 티켓과 경기 종료 후 선수단과의 사진 촬영 기회, 페퍼스 굿즈·사인볼·이디야커피 기프트 카드 등이 주어진다.
페퍼스는 오는 15일까지 모집 후 17일 페퍼스 공식 홈페이지(웹·SNS 등)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4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2024 광주시장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 발전 공로 표창

탁구팀·보치아 강선희 등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한 해의 도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장장애인체육회는 4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한 우수성적 거양자와 광주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격려하기 위한 "2024 광주시장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시장장애인체육회 임원, 장애인체육선수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5개 부문(체육진흥상·자원봉사상·공로상·홍보상·우수모범직원상)에서 광주시장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62명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행사는 지난 8월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포상금 전달식과 10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활약한 지역 선수단의 해단식을 겸해 치러

졌다.
이 문화경제부시장은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해 5개의 메달(금1·은1·동3)을 목에 건 광주시장장애인탁구팀과 2개의 메달(은1·동1)을 따낸 보치아 강선희(한전KPS)에게 포상금을 전달했다.
또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역대 최대 금메달 82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5위를 달성한 시 선수단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다관왕" 부문에는 5관왕을 달성한 양궁 이화숙, 4관왕 사격 박승우와 탁구 김성욱(이상 광주시청)이, '성취단체상'에는 공기총 임사(R4)에서 1902.2점을 쏘 세계신기록을 달성한 광주장애인 사격연맹과 단일종목 2만점 이상을 획득한 광주장애인육상연맹·광주장애인탁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도약단체상"은 작년 체전 대비 획득 점수 1000점 이상 상승한 광주장애인테니스협회·광주장애인태권도협회·광주장애인역도연맹이 수상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파리 3관왕' 양궁 임시현, MBN 여성스포츠대상 '최고의 별'

최우수상 태권도 김유진 수상
복싱 임애지는 페어플레이상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에 빛나는 임시현(한국체대)이 2024년 한해를 가장 빛낸 여성 스포츠인으로 뽑혔다. 화순출신의 복싱 임애지(화순군청의)는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임시현은 4일 서울 중구 엠베서더 풀만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MBN 여성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제12회 시상식에서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의 업적을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던 임시현은 2년 연속 한국 여성스포츠 '최고의 별'로 인정받았다.
MBN 여성스포츠대상은 스포츠 활성화와 여성 스포츠인 격려를 위해 2012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대상을 받은 임시현은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여자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을 모두 휩쓸며 3관왕을 달성, 양궁 대표팀의 5개 전 종목 석권에 앞장섰다.
특히 올림픽 여자 개인전 랭킹라운드에서는 694점을 쏘 세계신기록을 갈아 치웠고, 여자 단체전에서는 한국 여자 대표팀의 올림픽 10연패를 이끌었다.
최우수상에는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급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한국체대)이 4일 열린 제13회 MBN 여성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에 출전해 16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김유진(울산시체육회)이 선정됐고, 우수상은 파리올림픽 사격 25m 권총 금메달리스트 양지인(한국체대)에게 돌아갔다.
지도자상은 김미정 유도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이 받았고, 파리 올림픽 탁구 혼성 복식과 여자 단체전에서 모두 동메달을 딴 신유빈(대한항공)은 인기상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1월 시카고 여행을 이겨내고 2024 코르티나

국제스키연맹(FIS) 장애인 알파인스키 월드컵 활강과 슈퍼대회전 2관왕을 차지한 최사라(한국체대)가 활리지상을 받았다.
페어플레이상은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유도 허미미(경상북도 체육회), 골프 이예원(KB금융그룹)에게 돌아갔고, 영플레이어상은 파리 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에 오른 반효진(대구체고)이 수상했다. /연합뉴스

신민준 9단, 농심신라면배 9국서 역전패

한국 바둑대표팀의 세 번째 주자 신민준 9단이 농심신라면배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신민준은 4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계속된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2차전(5~9국) 마지막 경기인 9국에서 중국의 셰얼하오 9단에게 323수 만에 1집 반을 패했다.
백을 잡은 신민준은 중반 들어 대바꿔치기에 성공하며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 그러나 좌변에서 판단 착오가 나오면서 백진이 삭감되는 등 실수가 거듭되며 역전당했다.

신민준은 이후 300수가 넘도록 끈질긴 추격을 펼쳤으나 1집 반을 만회하지 못했다. 신민준이 패하면서 한국은 신진서·박정환 9단 2명만을 남긴 채 2차전을 마무리했다.
셰얼하오가 3연승을 질주한 중국은 덩하오·리쉬안하오 9단 등 3명이 남아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 일본은 시바노 도라마루 9단 1명만 남았다.
내년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최종 3차전(10~14국) 첫판인 10국에서는 셰얼하오와 시바노 9단이 대결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